

입자음운론과 국어

이 동 화

〈目 次〉

- | | |
|--------------|-----------------|
| 1. 서 론 | 2.2 국어에서의 입자음운론 |
| 2. 본 론 | 3. 결 론 |
| 2.1 입자음운론 개관 | |

1. 서 론

1.1 음운론자들이 어떤 음운현상을 다루게 될 때 통시성, 공시성의 문제뿐만 아니라, 그 현상에 대한 좀더 명확하고 합리적인 설명 방안을 찾기 위해 많은 고심을 하게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그리하여 그 현상을 지배하는 음운규칙은 무엇이며, 이것을 동기화하는 음운기제는 또한 무엇인지를 밝히려는 노력을 기울이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는 국어의 다양한 음운현상 가운데 모음과 관련되는 몇몇 현상에 대해 입자음운론적 관점에서 논의하고자 한다. 특히 움라우르, 음절축약, 이중모음의 단모음화, 보상적 장모음화 등에 대해 주된 관심을 가지고 다루되 설명의 편의상 경북방언의 자료를 주로 이용하게 될 것이다.¹⁾

1) 경북방언이라 하여도 지역적인 차이가 다소 있지만, 여기서는 안동을 비롯한 경북 북부지역의 방언이 주로 활용될 것이다. 대구를 중심으로 한 중남부 경북방언은 음소체계에 있어서 s과 s', i와 ə가 대부분 중화되어 실현되는 데 비해 중북부 경북방언은 두 음소 간에 변별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리나는 전설모음화의 두 현상을 자음에 의한 모음의 동화현상으로 보는 종래의 견해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즉 이들은 입자음운론적 관점에서 본다면 두 현상이 공모에 의한 무표성에서 유표성으로와 전환 곧 모음강화현상이라는 것이다. 입자음운론에서의 소립자(elementary particles)를 i, a, u의 세 개로 설정하고, 19C 초 국어 모음체계에서 [u]를 u로, [i]를 i로 표기할 때 [i]는 잠재표기(underspecification)이론에 의해 미표시 되는데,³⁾ 결국 원순모음화나 전설모음화에 의해 i>u나, 또는 i>i로 되는 것은 입자음운론에서 볼 때 무표인 [i]가 소립자 u나 i를 획득하게 되므로 이것은 모음강화현상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어 모음체계를 소립자 i, u, a 세 개로 충분히 표기할 수 있는지는 의심스러운 점이 있다.⁴⁾ 특히 [ə]를 au로 표기하고 [e]를 ia로 표기하는 체계에서는 예를 들어 음라우트현상에서 [ə]가 [e]로 변하는 것을 au가 ia로 바뀐다고 해야 되는데, 이것은 합리적인 설명방법이 되기 힘든 것이다.

2. 본 론

2.1 입자음운론 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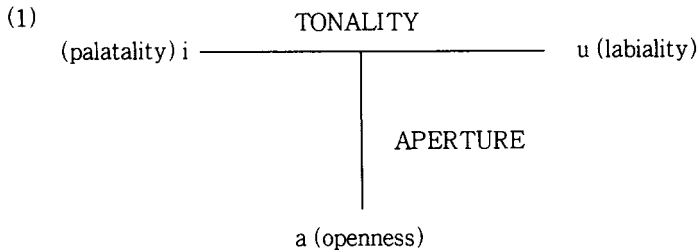
입자음운론의 이론적 토대는 ‘언어의 보편성’(universals of language)을 중시하는 Greenberg(1978) 등에 기초를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언어유형학적 관점에서 볼 때 세계 언어의 모음체계는 적어도 [i], [a],

3) 국어의 미표시이론에 대해서는 손향숙(1987)에서 자세하게 논의되고 있다.

4) Lass, R.(1984 : 277)에서는 의존음운론에 대해 논의하면서 가장 단순한 모음체계를 위해서는 적어도 세 개의 원소(elements, or primitives)인 [i], [u], [a]가 필요하지만, 중설모음(central vowels)을 위해서 적어도 원소 [ə]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u] 3모음체계가 가장 기본적이며 보편적이라는 가정에서 출발하고 있다.

Schane(1984 a, b)의 의하면 입자음운론에서 기본적인 음운론적 요소는 두 유형으로 되어 있는데, 원소입자(elementary particles)들과 구두 기호(punctuators)들이 바로 그것이다. 모음체계에서 가장 기본적인 a, i, u 세 개가 입자음운론의 원소입자가 되는 것이다. 이때 a는 개구성(aperture)이나 개방성(openness)을, i는 구개성(palatalty)이나 전설성(frontness)을, u는 순음성(labiality)이나 원순성(rounding)을 표시하며, [a], [i], [u] 이외의 모음들은 원소입자의 결합에 의해 표시된다. 이들 입자의 관계는 (1)에 제시된 그림을 통해 더욱 분명히 알 수 있다.



음조(tonality)의 왼쪽에 있는 i에 의해 전설성이 표시되고, 오른쪽에 있는 u에 의해 원순성이, 그리고 개구(aperture)의 방향에 있는 a에 의해 저설성이 결정되는 것이다. 따라서 전설모음은 i를 포함하고, 원순모음은 u를 포함하며, 비고모음은 a를 포함하게 된다. 그리고 단모음은 (2)와 같이 표시된다(Shane, 1984 b : 131).

(2) [i]	i	[u]	u	[ü]	iu	[i]	—
[e]	ai	[o]	au	[ö]	aiu	[Λ]	a

[ɛ], [æ] aai [ɔ] aau [œ] aaiu [a]a [a] aa

여기에서 음성기호는 전통적인 각괄호 표시이며, 입자 표시는 무괄호 표시이다. 그리고 구두기호인 플러스(plus)는 음절성[+syllabic]을, 빈칸(space)은 음장(length)을, 입자 밑의 반달(half-moon) 표시는 비음절성[-syllabic]을 각각 나타낸다. 따라서 장모음은 두 개의 단모음을 반복해서 빈칸을 두고 표시하며, 이중모음은 입자 밑에 반달표시를 하게 된다.⁵⁾

다음으로 입자음운론이 실제로 적용되는 몇 예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먼저 영어에 있어서 두 개의 모음이동현상을 다루고 있는 Schane(1984 a)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본다.

중세영어 이후 개음절 장음화(open syllable lengthening : OSL)가 발생한 과정을 입자음운론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3) [i] [I] [e:] [E] [ɛ:] [a:] [a] [u:] [U] [o:] [O] [ɔ:]
 1단계 i i a i ai i aai aai i a a a u u au au u aau aau u
 2단계 ai i aai i a a au u aau u

개음절 장음화가 발생한 이전의 1단계와 이후의 2단계를 비교해보면, 1단계의 단음이 2단계에서 장음화되면서 1단계의 장음과 병합(merge)되는데, 이때의 모음은 조음위치에서 한 단계 낮아진다. 예를 들어 [I]와 [e:]를 고려해 볼 때 입자 ai라는 중 모음(mid height)의 위치는 변하지 않았으나 i라는 입자가 증가됨으로써 음장의 변화를 초래하였다는 사실은 분명히 확인하게 된다.

5) 이중모음 및 장모음에 대한 표기는 Shane(1984. a : 39) 및 Shane(1984 b : 132)에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이번에는 모음대추이(Great Vowel Shift : GVS)에 대해 살펴보기 위해 자료부터 제시한다.

(4)	[i:]	[e:]	[ɛ:]	[a:]	[u:]	[o:]	[ɔ:]							
1단계	i	i	ai	i	aai	i	aa	a	u	u	au	u	auu	u
2단계	ai	i	i	i	ai	i			au	u	u	u	au	u
3단계	a	i			aai	i	a	u						
4단계	aa	i			i	i	ai	i	aa	u				

여기에서 각 단계별 변화과정을 살펴보면, 2단계에서 4개의 비고음조모음(nonhigh tonality vowels)이 각각 1개의 개구입자(aperture particle)를 상실한 반면 2개의 이중고모음은 1개의 입자를 획득하였고, 3단계에서 이중모음은 각기 음조입자(tonality particel)를 하나 상실하고 모음 [a:]는 구개성입자 i를 획득한 사실을 알게 된다. 그리고 4단계에서는 2단계의 양상이 그대로 반복된다. 결국 모든 단계에서 입자의 상호 교환이 이루어졌는데, 한 분절음 또는 분절음군이 특수한 입자를 상실하면 그와 똑같은 입자가 다른 분절음에 의해 획득되는 것이다.

다음은 Shane(1984 b)에 소개된 다른 예들을 통해 입자음운론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알아보기로 한다. 이들을 몇 개의 유형으로 나누면, 입자의 연속에 의한 것으로는 융합(fusion)과 분열(fission)이, 입자가 교체되는 것으로는 전환(mutation)이, 동화환경에서 실현되는 현상으로는 증가(cloning)와 감소(droning)가, 비동화환경에서의 현상으로는 강화(accretion)와 약화(decay) 등 일곱 가지가 있다. 이들이 적용되는 과정을 간략히 보이면 다음과 같다.⁶⁾

6)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Schane(1984 b : 133~137)을 참조할 것.

- | | | |
|------------------------------------|-------------------------|---------------|
| (5) ㄱ. 융합: [a _i] > [e] | ai > ai | (로마어, 산스크리트어) |
| ㄴ. 분열: [u] > [i _u] | iu > i _u | (중세영어) |
| ㄷ. 전환: [ei] > [oi] | ai > au _i | (고대프랑스어) |
| ㄹ. 증가: [u] > [ü] / -[i] | u > i _u / -i | (게로만어) |
| ㅁ. 감소: [æ] > [e] / -[i] | ai > au - i | (고대영어) |
| ㅂ. 강화: [u] > [ü] | u > iu | (고대프랑스어) |
| ㅅ. 약화: [ü] > [i] | iu > i | (그리스어, 영어) |

위의 (5ㄱ~ㅅ)에 나타난 예를 통해서 음소를 자질들의 묶음으로 보는 표준생성음운론에서 명쾌하게 설명하지 못했던 음운의 변화를 입자음운론에서는 간결하고 타당성 있게 설명해 주고 있음을 알게 된다. 즉 음운의 변화는 특정한 음소를 표시하는 입자(들)의 이합이나 교체 또는 증감에 의해 정확히 설명되어 진다.

한편 입자음운론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는 의존음운론은 가장 기본적인 세 가지 특징인 i의 전설성(frontness), u의 원순성(roundness), a의 저설성(lowness)이 상호간에 지배, 종속적인 결합에 의해 모든 모음을 표시하려는 이론이다.⁷⁾

그러면 이들의 표시되는 몇 가지 예를 제시한다.

(6) [e] i	[ɛ] a	[o] u	[ɔ] a
a	i	a	u

물론 이들은 특정언어의 모음체계에 의해 결합관계가 달라지는데, 의존

7) Lass(1984 : 275)에서는 의존음운론의 세 요소에 대해 i는 구개성(palatality), u는 원순성(roundness), a는 개구성(openness)을 그 특징으로 보고 있다.

음운론에서의 원소의 표기순서(수직표기)는 입자음운론에서의 입자의 표기순서(수평표기)와 일치한다.

2.2 국어에서의 입자음운론

2.2.1 국어의 입자음운론적 모음체계

입자음운론은 체계의존적이기 때문에 대상언어의 모음체계에 따라 원소입자의 수가 최소한 3개 또는 그 이상이 될 수도 있고, 모음체계도에서의 모음위치에 따라 입자의 결합관계가 달라질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통시적 변화를 다룰 경우 모음체계의 변화를 역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여기서는 공시적 현상에 나타난 자료를 위주로 하면서 통시적 성격의 자료도 부분적으로 이용될 것이므로 중세국어의 모음체계를 논의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이다. 다만 어떤 방언을 대상으로 할 경우 지역적인 차이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데, 현대국어에 있어서 동남방언과 중부방언을 비교해 보면 후자의 경우가 전자의 경우보다 음소(특히 모음)의 수효가 더 많으므로 후자의 모음체계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논의상 더욱 편리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면 중부방언을 중심으로 한 모음체계를 다음에 제시한다.⁸⁾ 경북방언과의 차이를 고려하여 괄호 속에 있는 모음은 중부방언에서만 쓰이는 모음임을 표시한다.

8) 최근 들어 중부방언에서도 젊은층에서는 ‘ㄱ(y), ㄱ(∅)’가 이중모음으로 실현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7) 현대국어 모음체계

i	(y)	ɨ	u
(e)	(ø)	ə	o
ɛ			
		a	

(8) 모음체계의 입자음운론적 표시

i	(<u>ui</u>)	—	u
(əi)	(<u>uai</u>)	ə	ua
ai			
		a	

위의 (8)에 제시된 입자음운론적 표시와 관련하여 한두 가지 논의할 점이 있다. 먼저 [i]에 대해서는 미표시(underspecification)된 채로 원소입자를 부여하지 않았는데, 그것은 국어의 모음 가운데 가장 무표적인 것은 바로 [i]이며, 또한 미표시된 모음은 잉여규칙에 의해 나중에 자질을 부여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⁹⁾

다음은 원소입자를 몇 개로 설정하느냐 하는 문제인데, 언어의 보편성을 고려하여 가장 기본적인 입자는 a, i, u 3개면 충분한 것으로 Schame(1984 a, b)에서 이미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음운현상을 염두에 둘 때 국어에서 3개의 입자로 설명의 타당성을 과연 얻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ə]의 입자 표시를 어떻

9) 잉여규칙(redundancy rule)이나 국어의 미표시이론에 대해서는 Pulleyblank (1986)이나 손향숙(1987) 등을 참조.

게 하느냐 하는 것인데, 저설모음 [a]에 대해 2개의 입자인 aa로 표시하고 [ə]에 대해서는 1개의 입자 a로 표시하는 방안과 [a]는 a로, [ə]는 a u로 표시하는 방안 등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런 방안은 음운현상과 관련지어 생각해 본다면 매우 불합리한 것이라는 것이 금방 드러나게 된다.

가령 국어에서 동화주 i(또는 j) 앞의 파동화음이 전설모음화하는 음라우트의 경우 [ə]는 [e]로, [a]는 [ε]로 바뀌게 되는데, 입자음운론적 표시에서 전자의 방안을 따르면 a→ia, aa→ai가 되고, 후자의 방안에 의하면 au→ia, a→ai가 되어 음라우트 과정에서 구개성 입자 i가 하나 증가되는 일반적인 현상을 어느 방법으로도 충분히 설명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국어에서는 중성설(centrality)의 입자 a를 하나 더 추가하여 (8)에 제시된 것처럼 4개의 입자 a, i, u, ə를 설정할 때 비로소 여러 가지 음운현상을 자연스럽게 설명할 수 있게 된다.¹⁰⁾ 왜냐하면 위의 음라이트현상에 대해 [a]→[e]는 a→ai로, [a]→[ε]는 a→ai로 표시하면 되기 때문이다.

한편 문법의 간결성을 중시하는 입장에서 보면 (8)의 제안은 아무래도 꺼림칙한 느낌이 들기 때문에 국어의 음운현상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큰 무리가 없는 수정 제안이 필요할 것 같다. 그것은 원소입자 a, i, u 3개를 설정하되 모음에 대한 입자표시를 약간 바꾸는 방안이다. (8)의 제안은 (8)'로 바꾸자는 것이다.

10) 의존음운론에서도 기본원소로서 a, i, u 외에 ə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Lass(1984 : 277)에서도 이미 강조된 바 있다.

“…… In fact we need at least one more primitive : |ə| or ‘centrality’, to characterize both central vowels and centralized back and front vowels.”

(8)' 모음체계의 입자음운론적 표시(수정안)

i	(<u>ui</u>)	-	u
(ai)	(uai)	a	ua
aai		aa	

앞에서 제시된 (8)과 (8)'를 비교해 볼 때 달라진 것은 ə, a, əi, ai가 각각 a, aa, ai, aai로 바뀐 점이다. 나중에 제안된 표시방법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앞으로 차츰 입증될 것이다.

2.2.2 음라우트

국어의 음운현상 가운데 가장 많이 논의된 것 중의 하나가 바로 음라우트이다. 동화주 i(또는 j)와 피동화음 사이에 주로 비설정적(-coronal) 자음이 개재될 때 선행하는 피동화음이 역행동화하는 현상이 국어에서 널리 알려져 있는 음라우트의 핵심이다. 물론 설정적 자음이 개재되어도 수의적으로 음라우트가 발생하기도 하며, 지역차·세대차에 의해서도 그 실현의 정도가 다르며, 공시성, 통시성의 문제도 최근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다.¹¹⁾

그러나 여기서는 이런 문제가 관심의 초점이 아니므로 개별모음(파동화음)이 음라우트의 과정을 겪고 난 다음 어떤 모음으로 변했으며, 이것은 입자음운론적 관점에서 어떤 의미를 갖느냐 하는 데 관심을 집중시키기로 한다. 음라우트의 적용을 받는 피동화음은 [i], [ə], [a], [u], [o] 등이 있는데, 먼저 이들과 관계되는 자료부터 제시한다.

11) 국어의 음라우트에 대해서는 너무 많은 논의가 있어 왔기 때문에 이 방면의 논문들을 일일이 열거할 수 없으나, 최태영(1978), 서정목(1981), 최명옥(1988) 등에서 비교적 상세히 검토된 바 있다.

(9) ㄱ. [ɨ]>[i]

그림(畫)>기림, 드리-(獻)>다리-, 끓어-(蒸)>끓이-

ㄴ. [ə]>[e]

어미(母)>에미, 먹이-(食)>멕이-, 버리-(廢)>베리-,
어렵-(難)>에렵-, 구덩이(穴)>구텡이>구덩이

ㄷ. [a]>[ɛ]

아버(父)>애비, 아기(兒)>애기, 호랑이(虎)>호랭이,
아까-(惜)>애까-, 남기-(餘)>냉기-, 깎이-(削)>깎이-

ㄹ. [u]>[y]

모둥이(隅)>모똥이>모똥이, 죽이-(死)>죽이->직이-,
몽둥이(鞭)>몽똥이>몽똥이

ㅁ. [o]>[∅]

고기(魚)>괴기, 옮기-(遷)>윙기-, 속아-(欺)쇠이-

이들의 음운변화를 입자음운론적 방법으로 다시 표기하면 다음과 같다.

(10) ㄱ. [i]>[i]

ㄴ. ->i

[ə]>[e]

a>ai

[a]>[ɛ]

aa>aai

[u]>[y]

u>ui

[o]>[∅]

ua>uai

위에서 (10ㄴ)에 제시된 입자 표시의 예를 통하여 음라우트의 실현과 함께 구개성 입자 i를 획득하게 된 사실을 확실히 알게 된다. 즉 피동화 음이 기저에서 지녔던 입자(들은) 음라우트에 의해 구개성 입자를 1개 획득함으로써 해서 전설화(fronting)되는 음운과정을 일목요연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¹²⁾

이번에는 입장을 조금 달리하여 의존음운론적 관점에서 이 현상을 살펴보기로 하자.

(11) ㄱ. ->i	a>ai	aa>aa <i>i</i>	u>ui	ua>uai
ㄴ. ->i	a>a	a>a	u>u	u>u
		i		
	i	a a	i	a a
		i		i

위에 제시된 (11ㄱ)의 입자음운론적 표시와 (11ㄴ)의 의존음운론적 표시와의 비교를 통해 (11ㄴ)의 표시방법이 더욱 명쾌하게 어떤 사실을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11ㄴ)에서 음라우트가 발생한 다음에 의존자(dependent) i가 각각 지배자(governer)에 종속됨으로써 i가 지닌 구개성을 획득하게 되며, 동시에 전설모음화가 실현되는 것이다.

2.2.3 음절 축약

형태소 내부나 형태소 경계에서음질이 축약되면서 모음의 변동이 발생하게 된다.¹²⁾ 이때 결합되는 두 모음은 하나의 모음으로 축약되거나 또는 이중모음을 형성하게 되는데, 입자음운론적 관점에서는 이런 현상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살펴보기로 한다.

12) 물론 표준생성음운론의 입장에서도 음라우트에 의해 생성된 [i], [e], [ɛ], [y], [ø]는 공통적으로 변별자질 [-back]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설화되는 음운과정을 알 수는 있으나 적어도 음소표기에는 그것이 확실히 나타나 있지는 않다.

13) 대체로 형태소 내부에서는 통시적 변화가 발생하고 형태소 경계에서는 공시적 변동이 일어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지만, 여기서는 통시성, 공시성의 문제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갖지 않는다.

- (12) ㄱ. [a]+[i]>[ɛ:] aa+i>aai i
 가히(夫)>개, 사이(間)>새, 아이(兒)>애¹⁴⁾
- ㄴ. [u]+[ə]→[wə:]→[o:] u+a→ua a→ua a
 꾸-(夢)+어→꿔
 주-(授)+어→줘→조 :, 누-(泄)+어→뉘→노 :
- ㄷ. [o]+[a]→[wa] ua+aa→uaa
 오-(來)+아→와

먼저 (12ㄱ)은 형태소 내부에서 두 개의 모음이 하나로 축약되는 과정인데, 입자음운론의 관점에서 보면 입자의 수에는 변동이 없고 구두기호인 ‘플러스’(+)가 없어진 대신 ‘빈칸’(space)이 하나 생겼기 때문에 음장(length)을 획득하게 되어 장모음(long vowel)으로 실현된다. 그리고 형태소 경계에서의 음운현상을 나타내는 (12ㄴ)의 경우는 어사에 따라서 서로 다른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u]와 [ə]가 결합하여 [wə]로 실현되는 것은 입자음운론에서 보면 입자수의 변동은 없으나, 음절성을 지닌 u가 비음절성(nonsyllabic)인 u로 약화된 반면 [u], [ə]의 결합에 의해 [wə]의 과정을 거친 다음¹⁵⁾ [o:]로 실현되는 예는 u와 a의 결합과정에서 음절성인 플러스가 상실된 대신 음장을 나타내는 ‘빈칸’을 획득하게 되어 결국 장음으로 실현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o]와 [a]의 결합으로 [wa]가 형성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12ㄷ)의 예는 원소입자의 연결체에서

14) 경북방언에서는 ‘아이>아’로 실현되므로 입자음운론적 표시는 aai i가 아니고 aa a가 된다. 이때 구개성 입자 i가 개구성 입자 a로 교체된 음운기체는 밝히기 힘들다.

15) ‘주-, 누-’와 같은 어사가 모음어미와 결합하여 표면형 ‘조, 노’로 실현되는 과정에서 두 모음이 축약된 [wə]의 과정을 거쳤는지는 확실치 않다. 따라서 이들의 표면형을 ‘재구조화된 어간’으로 보고 어휘목록에서 어간의 기저형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는 설명의 편의상 그런 과정을 밝은 것으로 해석해 보았을 뿐이다.

개구성 입자 a가 하나 상실되고 이와 함께 u의 음절성이 없어지면서 비음절성인 u로 약화되었다. 이런 과정은 비동화환경에서 발생하는 현상이기 때문에 음운론적 타당성이나 그 동기를 부여하기는 어렵다.

2.2.4 이중모음의 단모음화

중세국어에서 이중모음이었던 ‘이[ʌj], 꺨[əj]’는 근대국어에 와서 ‘꺨[ɛ], 꺨[e]’로 단모음화되는 과정을 밟았다. 그러나 여기서 다루려는 것은 이런 현상이 아니고 경북방언(또는 동남방언)에서 비교적 널리 쓰이고 있는 자음 뒤에서의 이중모음이 단모음화되는 과정이다. 이 방언에서는 자음을 선행하지 않은 이중모음은 대부분 음가대로 실현되지만, 자음이 선행되면 단모음화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다.¹⁶⁾ 먼저 w-계 이중모음을 중심으로 몇 가지의 자료를 제시한다.

- (13) ㄱ. [wə] > [ə] ua > a
 꿩(雉) > 꺨, 권(卷) > 권¹⁷⁾
- ㄴ. [wa] > [a] uaa > aa
 광(庫) > 강, 관(棺) > 간, 활(弓) > 할
- ㄷ. [wi] > [i] ui > i
 귀(耳) > 기, 뒤(後) > 디, 쥐(鼠) > 지
- ㄹ. [wɛ] > [ɛ] uaaɪ > aai
 래(櫃) > 개, 해 > 해, 꿩-(貫) > 개-, 돼지(豚) > 대지

16) 사회언어학적인 측면에서 볼 때 전형적인 반촌지역의 화자들이나 일부지식층에 속한 사람들은 특히 공식적인 대화에서 자음 뒤의 이중모음도 비교적 정확히 사용하여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 방언의 자연스런 발화라고 보기는 힘들다.

17) 최명옥(1980)의 보고에 의하면 경북 동해안 지역에서는 ‘꺨, 권’ 등이 각각 ‘꿩, 곤’으로 실현되고 있다고 한다. 이 지역어는 [wə] > [o]의 음운과정을 밟은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입자음운론적 관점에서 보면 ua > ua로 바뀐 것이 된다. 따라서 이것은 두 개의 원소입자가 연결되면서 융합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자음을 선행한 이중모음이 수의적으로 실현되기는 하나 위의 (13)에 나타난 예들처럼 대체로 단모음화된다. 자음 뒤에서의 w-계 이중모음은 w가 삭제되면서 핵모음만 남게 되는데, 이 현상을 입자음운론적 입장에서 보면 비음절성(nonsyllabic)의 원순성 입자 u가 원소입자의 연결과정에서 상실하게 된 나머지 a, aa, i, aai만 남게 된다. 이것은 비동화환경에서의 입자의 약화현상으로 해석된다.

2.2.5 보상적 장모음화

어간말모음과 어미 첫 모음이 결합하는 과정에서 음절이 축약되어 활음이 형성될 때 보상적 장모음이 발생하는 것은 국어에서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구체적으로는 [o]와 [a]가 결합하여 [wa:]를 형성한 뒤 수의적으로 [a:]로 바뀌기도 하는 현상을 말하는데, 자음을 선행한 어간의 경우에만 발생하게 된다. 어간말에 활음 h를 지닌 어사도 형태소 결합과정에서 모음간의 h는 삭제되므로 마찬가지로 결과가 일어나게 된다. 자음을 선행하지 않은 ‘오-(來)’와 같은 어간은 활음이 형성되어도 장음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이미 (12ㄷ)의 예에서 살펴보았다.

- (14) ㄱ. 보-(見)+아→봐:(~바:), 쏘-(射)+아→싸:(~싸:)
 ㄴ. 놓-(置)+아→노아→놔:(~나:)
 ㄷ. 좋:(好)+아→조:아
 ㄹ. 얼궁-(氷)+아→얼과:(~얼가:), 거둡-(收)+아→거와:(~거다:)
 ㅁ. 싸우-(鬪)+아→싸와, 배우-(學)+아→배와(~배아)

자음을 선행한 어간말모음 [o]와 어미 첫모음 [a]가 결합하면 활음을 형성하면서 음절이 축약됨과 동시에 보상적 장모음이 발생한다(14ㄱ). 이때 수의적으로 활음이 삭제되어 표면형으로 실현되기도 하는데 역시 음장의 변동은 없다. 또한 어간말에 활음 h를 지닌 어사라 할지라도 모음

조성되므로 보상적 장모음이 발생하게 된다(14ㄴ). 그러나 이것은 단모음 어간일 경우에만 가능하고 (14ㄷ)의 ‘중-’과 같이 장모음어간일 때는 이 현상을 외면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1음절이 2모라인 장음이 활음을 형성하여 보상적 장모음이 발생하면 1음절 3모라의 장음이 표면음성제약에 의해 보상적 장모음화가 저지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14ㄷ)과 (14ㄹ)의 예를 비교해 보면, (14ㄷ)의 어사들은 어간말에 활음 h를 지닌 것들인데, 모음어미와 결합하면 h가 삭제되므로 결국 (14ㄹ)의 어사들과 같은 음운환경이 되는데 전자는 활음 형성 후 보상적 장모음이 발생하는 데 반해 후자는 그렇지 못하다. 그러면 이런 현상은 무엇에 기인하는 것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것은 성조 때문임이 분명하다.¹⁸⁾ 전자인 ‘얼굴.’의 어간성조는 LH이고 후자인 ‘싸우.’의 어간성조는 HL인데, 만약 이들이 활음형성에 의해 보상적 장모음이 발생한다고 가정하면 전자의 성조는 LH̄L이 되고 후자의 성조는 HL̄L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경북방언에서 이른바 저장조라 불리는 ̄L̄복합성조는 어두에서만 실현되고,¹⁹⁾ HL̄복합성조는 어두이든 비어두이든 음절 위치에 관계없이 어디에서나 실현이 되고 있다. 따라서 후자의 경우는 비록 활음 형성의 과정을 거쳤다고 하더라도 비어두인 제2음절에서 장음이 발생될 수 없는 것이다.

이번에는 입자음운론적 관점에서 이들 현상을 살펴보기로 한다.

(15) ㄱ. [o]+[a]→[wa:]	ua+aa→ <u>u</u> aa a
ㄴ. [u]+[a]→[wa:]	u+aa→ <u>u</u> aa a

18) 경북방언의 성조와 음장의 관계에 대해서는 이동화(1993)에서 비교적 자세히 논의될 예정이다.

19) 이미 잘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이 국어에서의 음장은 어두에서만 실현된다고 하는 주장은 경북방언에서의 ̄L̄복합성조를 가리키는 것이다.

입자 u가 지녔던 음절성이 상실되어 u로 바뀌는 대신 ‘빈칸’을 획득함으로써 음장이 늘어나게 되었으므로 결과적으로 두 개의 단음절(short syllable)이 축약되어 한 개의 장음절(long syllable)로 된 사실을 알 수 있다. 음절이 줄어든 데 대한 보상작용으로 음장이 늘어나게 되어 전체적으로는 음장의 변동이 없게 된 것이다.

3. 결 론

지금까지 입자음운론의 이론적 배경이나 표기 방법을 간략히 소개하고 국어에도 이 이론의 도입이 타당한지를 검토하기 위해 몇몇 음운현상들을 중심으로 조심스럽게 살펴보았다. 앞에서 논의된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입자음운론은 언어유형학적 관점에서 언어의 보편성에 토대를 두고 있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원소입자의 표시에 의해 특정언어의 모음체계와 모음끼리의 음운현상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매우 간결하고 명쾌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② 국어에서의 음라우트현상은 동화주 i(또는 j)와 피동화음 사이의 동화현상인데, 입자음운론의 입장에서는 동화환경에서의 구개성 입자 i의 증가에 의한 강화현상이며 아울러 i의 전설성에 의해 피동화음이 전설모음화되는 과정으로 해석하였다.

③ 음절축약 현상에 있어서 형태소 내부에서의 축약은 원소입자의 변동없이 그대로 결합되었으므로 입자의 융합현상이라 할 수 있고, 형태소 경계에서의 축약은 음절성의 입자가 비음절성의 입자로 바뀌었으므로 입자의 약화현상으로 보게 된다.

④ 특히 경북방언에서 매우 생산적인, 자음 뒤의 이중모음의 단모음화는 비음질성 입자인 u 가 상실되는 과정이므로 비동화환경에서의 약화현상으로 해석된다.

⑤ 국어에서 자주 발생하는 보상적 장모음화는 형태소가 결합하는 과정에서 음절 축약에 의해 장모음이 발생하는 현상인데, 형태소가 결합하기 전의 음절성 입자 u 가 형태소가 결합한 뒤에는 비음질성 입자 u 로 바뀌는 대신 구두기호인 ‘빈칸’을 획득함으로써 음장이 늘어나게 되어 결국 전체적인 음장의 변동은 없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참 고 문 헌

- 김기호(1990), “계층적 자질수형도에서의 비표기와 잠재표기”, 「언어」(한국언어학회) 15권.
- 김영만(1987), “국어초분절음소의 사적 연구”, 고려대 대학원 박사논문.
- 배주채(1991), “고흥방언의 음장과 음조”, 「국어학」(국어학회) 21.
- 서정목(1981), “경남 진해지역어의 음라우트현상에 대하여”, 「방언」(한국정신문화연구원) 5.
- 손향숙(1987), Underspecification in Korean Phonology, Ph. D. dissertation University of Illinois, Urbana.
- 오정란(1991), “모음강화 현상으로서의 원순·전설모음화”, 「국어학」(국어학회) 21.
- 이동화(1992), “울격음운론과 국어”, 「화갑기념논총」(청하 김형수 박사), 형설출판사
- _____ (1993), “경북방언의 성조와 음장”, 「영남어문학」(영남어문학회) 23.
- 이병근(1978), “국어의 장모음화와 보상성”, 「국어학」(국어학회) 6.
- 최명옥(1980), 「경북 동해안 방언연구」, 영남대학교 출판부.
- _____ (1982), 「월성지역어의 음운론」, 영남대학교 출판부.

- _____ (1988), “국어 Umlaut의 연구사적 검토 - 공식성과 통시성의 문제를 중심으로 -”, 「진단학보」 65.
- 최태영(1978), “전주방언의 Umlaut 현상”, 「어학」 (전북대) 5집.
- Anderson, J. and Durand., J.(ed.)(1987), Explorations in Dependency Phonology, Foris Publications.
- _____ and Ewen, C. J. (1987), Principles of Dependency Phonology, Cambridge University Press.
- Durand, J.(eds.)(1986), Dependency and Nonlinear Phonology, Croom Helm Ltd.
- Goldsmith, J. A.(1970), Autosegmental Phonology, IULC.
- Greenberg, J. H.(1978), Typology and Cross-linguistic Generalizations, Greenberg, et. al.(1978), Vol. 1. Method and Theory.
- Lass, R.(1984), Phonology : An Introduction to basic Concepts, Cambridge University Press.
- Pulleyblank, D.(1986), Tone in Lexical Phonology, D. Reidel Publishing Co.
- Schane, S. A.(1984 a), Two English Vowel Movement : A Particle Analysis, in Aronoff, M., and Oehrle, R. T.(ed.), Language Sound Seructure, MIT Press.
- _____ (1984 b), The Fundamentals of Particle Phonology, Phonology Yearbook I, Cambridge University Press.